

석유화학 유도제품 회복기조 선명

일본, 상반기 생산 2자릿수 증가 ...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용 꾸준

일본의 석유화학제품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봄 이라크 전쟁과 SARS 문제 등이 아시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으나 2003년 상반기 에틸렌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한 365만톤을 기록했으며 주요 유도제품도 모두 전년실적을 웃돌았다.

전반적으로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나 중간원료, Monomer 관련을 중심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용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던 국제유가·나프타 가격이 고가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하반기 수익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2003년 에틸렌 생산은 정기보수 및 일부 설비트러블 등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으나 2003년 1/4분기 가동률이 높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약 365만톤을 기록했다.

일부에서 밝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일본시장과 SARS 문제가 종식된 중국, 자동차용 등이 호황을 보이는 타이 등 호재가 많아 연간 에틸렌 생산은 700만톤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반기 주요 유도제품 생산에서 HDPE(High-Density Polyethylene)만이 전년실적을 밑돌았는데, HDPE는 필름 등 범용분야에서 중동산 등 수입품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가공제품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PP(Polypropylene)는 15% 증가한 141만톤, EO(Ethylene Oxide)는 15% 증가한 46만톤, EG(Ethylene Glycol)가 21% 증가한 41만톤, Acetaldehyde가 15% 증가한 20만톤, AN(Acrylonitrile)이 15% 증가한 21만톤, Butadiene Rubber가 14% 증가한 14만톤, 벤젠이 11% 증가한 225만톤, 톨루엔이 10% 증가한 79만톤, Xylene이 12% 증가한 264만톤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자릿수 증가했다.

PP는 최근 들어 증가세가 주춤하기는 하나 자동차용으로 수요가 꾸준히 있으며, Xylene 및 EG는 Polyester 수요 신장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벤젠도 Styrene 관련을 중심으로 증산되고 있으며, AN도 중국에서 ABS용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MMA Monomer는 공급능력 제약 때문에 7% 증가한 26만톤에 머물렀으나 액정관련제품을 중심으로 풀가동되고 있다.

석유화학 유도제품 생산이 꾸준한 가운데 LDPE 등 Polyethylene 수요가 최대초점이 되고 있다.

LDPE는 상반기 생산이 3% 증가한 89만톤으로 소비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일본 경기 회복이 관건이 되는데, 아시아 시장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유가 급등과 연동해 나프타 시세도 고가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수익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18>